

# 전주매일

▶ 매일 INDEX



3면

새민주 "檢, 전직 대통령 욕보이지 말라"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음 8월 9일) 제35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자치도, '전북특별법'에 명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본격

### 농생명산업 강점 살려 특화산업 육성·국가 거점화 도, 위원회 구성하고 지구 지정 위한 행정절차 돌입 남원 ECO 스마트팜 등 2개 유형 모두 7개 지구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명시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시동을 걸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은 전북자치도가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가진 농생명산업의 강점을 살려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전북자치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 5개년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과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11명, 위원장 경제부지사)를 개최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농생명산업지구를 신청한 도내 12개 시군, 19개 지구의 평가(1차 서면, 발표, 2차 현장) 결과를 토대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지구유형(선도, 예비지구)을 심의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5개년) 수립 운영 중간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시상부한 농생명산업수도로 육성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을 수립해 연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시군으로 선정된 곳은 '농업생산 연계형' 4개소, '혁신산업 중심형' 3개소 등 모두 7개 지구다. 농생명산업의 규모화·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생산 연계형' 지구는 남원시 ECO 스마트팜, 장수군 저탄소 한우, 임실군 치즈, 고창군 김치지구 등이다. 또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선점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산업이 집적된 핵심거점을 조성해 목표로 한 '혁신산업 중심형' 지구로는 익산시 동물약품, 진안군 홍삼, 순창군 미생물 지구 등 3개소가 뽑혔다. 이 곳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전북자치도가 갖게 됨에 따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해서 속도감 있게 토지

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위해 지구 설명회, 예비 신청지구 사전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부처협의 등을 꼼꼼히 추진해 왔다.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에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각종 특례와 규제완화로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과거 전통적 농도 및 식량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 농생명산업의 수도, 농생명산업의 선도시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농생명산업지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에서 특례 적용,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 청년농 유입 등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콘퍼런스를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미래로 가는 문 여는 데 전북자치도가 주도'

### 김관영 도지사,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참석

### 국가 지역 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전북 역할 강조 시도지사들, '지방 소멸 위기대응 협력' 성명문 발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서울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 참석해 '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 첨단 정책 테스트베드 조성'을 주제로 전북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전대미문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엽니다'라는 컨셉으로, 지방의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보완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주관으로 12개 시도지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조 세션과 3개의 일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행사의 큰 슬로건 하에 인구 감소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주제로 시도지사들

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기조 세션에서 전북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설명하며, '함께 혁신'의 사례로 다양한 벤치마킹 사례와 기업지원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특례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방의 강점을 살린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음을 언급하며, '전북이 대한민국의 정책 테스트베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농생명산업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전북 특별법을 통해서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제대로 실시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전북이 국가 대표 브랜드 '기억하기 좋은 도시' 부

문 대상을 수상하게 된 비결로 역대 최고인 13조원의 기업유치 성과와 함께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전북자치도의 기업친화적 정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전대미문의 인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특색을 살린 지방만의 정책 구현, 즉 '모든 지방의 정책 테스트베드화'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테스트베드 추진에 있어 과감한 권한이양 등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전북이 앞장서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결의하며, 지역 경제 위축과 지방 소멸의 위기 대응에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만호 기자

10월, 더 맛있는 전주

문화도시 전주, 10월 통합축제

# 전주페스타 2024

JEONJU FESTA

- 함께 하Go!**  
오프닝 & 클로징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전주독서대전  
전주조선팝페스티벌  
전주막걸리축제
- 먹Go!**  
달콤스토어(CJ제트페이)  
전주페스타 맛잔치  
전주페스타 맛자랑  
전주페스타 숲BOX  
전주페스타 x 쿠키런
- 보Go!**  
지상최대 드론쇼(2,024대)  
레트로클럽 & 히든쇼  
K-뮤지컬 마당창극  
전주한바탕아울름공연  
한복모델신발대회
- 즐기Go!**  
우리놀이터(전통놀이)  
우리한복 체험  
미션 & 미로체험  
포토BOX(내컷사진)  
전주페스타 붐업 이벤트

2024. 10. 3. ~ 10. 26.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11월 문 연다

전북자치도, 카카오펀터프라이즈 · 전주대 · 아토리서치와 협약 체결  
전주대 스타센터 1·2층에 구축... 디지털 인재 양성 · 네트워크 운영

전북에 카카오펀터프라이즈가 디지털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가 들어선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카카오펀터프라이즈 이경진 대표이사,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아토리서치 정재용 대표이사가 함께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카카오펀터프라이즈는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축해 인재양성 및 창업기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는 디지털 혁신센터 운영의 행정적 지원과 협업사업의 발목을 지원한다. 전주대는 센터의 공간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토리서치는 데이터센터 플랫폼 분야 교육을 주도하며 배출 교육생 채용 연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김관영 도지사가 관외의 카카오펀터 부트캠프'를 방문해 전북에 디지털 혁신센터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속도감있게 구체화되었다고 전했다. 10여 차례에 걸쳐 구축공간 제안과 현장실사, 기간간 협업사항 등을 논의하며 2개월만에 추진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펀터프라이즈는 올해 11월 개소를 목표로 전주대 스타센터 1·2층 1,600㎡ 규모로 전북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12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전문 인재 양성에서부터, 창업, 기업성장, 네트워크까지 전북 디지털 생태계 조성의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실무 프로젝트와 해커톤 등 다양한 훈련을 통해 실무에 즉시도입가능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을 희망 청년에게는 카카오펀터프라이즈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도 연동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전문개발인력 확보에 목마른 지역 ICT·SW 기업들의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기업들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디지털 혁신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카카오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인재를 키워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업을 불러들여 탄탄한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진 카카오펀터프라이즈 대표이사는 "지난해 전북과 맺은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첫 번째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디지털 혁신을 지원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전북 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펀터프라이즈는 카카오펀터의 계열사로 클라우드, AI 플랫폼 기반의 IT혁신 서비스 및 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IT기업이며, 아토리서치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만호 기자